

부고

메리 세런 MARY SHARRON 수녀

ND 4983

엘리사벳 앤 골러 Elizabeth Ann GOLLER



미국,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생	1939년 2월 23일	오하이오 신시내티
서원	1959년 8월 16일	켄터키 커빙턴
사망	2026년 1월 30일	켄터키 커빙턴
매장	2026년 2월 5일	켄터키 커빙턴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미카 6,8)

윌리엄과 마거릿 골러의 장녀인 베티 앤 골러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독일계 혈통을 가진 자랑스러운 아일랜드계 가정에서 태어났다. 베티는 전통이 풍부하고 가톨릭 가치관이 깊이 뿌리내린 가정에서 자랐다.

베티 앤은 오하이오 본드 힐에 있는 세인트 아그네스 학교에 다녔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노트담 수녀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 인연은 성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8학년을 마친 후, 베티는 수녀가 되기를 희망하는 아스피란트 되어 노트담 아카데미에서 학업을 이어갔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신앙 여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 청원자가 되었다. 메리 세런 수녀는 1959년 8월 16일에 서원을 받았다.

메리 세런 수녀는 헌신과 열정으로 고등 교육에 매진했다. 빌라 마돈나 대학(현 토마스 모어 대학교)에서 초등 교육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다음, 켄터키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하비에르 대학에서 추가 연구를 통해 행정 자격증을 취득했다.

사도직 기간 동안 메리 세런 수녀는 커빙턴 교구와 신시내티 대교구의 여러 학교에서 봉사했다. 가톨릭 교육에 대한 열정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켄터키 커빙턴의 프린스 오브 피스 학교, 오하이오 테일러 크릭의 세인트 버나드 학교, 오하이오 카르타고의 세인트 찰스 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했다.

2001년에는 홀리 크로스 고등학교에서 진심으로 아끼는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특수 교육 교사, 종교 교사, 그리고 기금 모금 담당자로 활동하며 따뜻한 마음, 인내심과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8년 은퇴 후에도 수년간 홀리 크로스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학교 공동체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었다.

2023년 11월, 수녀는 세인트 찰스 캠퍼스의 루르드 홀로 은퇴하여 수도 공동체의 보살핌과 우정 속에 여생을 보냈다. 메리 세런 수녀는 2026년 1월 30일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수녀는 깊은 신앙심과 변함없는 봉사, 교육과 성소에 대한 헌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수녀의 유산은 수녀가 돌보았던 학생들, 발전에 개입했던 학교들, 수녀를 사랑했던 공동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부디 메리 세런 수녀가 받아 마땅한 영광스러운 안식을 누리기를.